

삶의 역사성과 풍문성*

—한용운과 그의 시대 1—

고재석**

1. 다시 침묵의 산 앞에서

사랑과 미움의 변증법, 그 역사와 풍문의 얼크러짐을 들여다볼 무렵 ‘늦인 봄의 꽃 수풀’에 앉아 있는 한용운과 그 수풀에 가린 또 다른 그늘에서 있는 양건식을 만났다. 이들이 머물렀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반추가 결코 초라한 몸짓도 아니며 전통이란 버려야 할 유산이 아님을 다시 느꼈다.¹⁾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은 과연 진실인가. 이 글을 썼던 세월은 벌써 아득한데 아직도 그 시절의 상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뿐인가. 저 경솔함이라니. 글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옛사람의 마음은 결코 사치스런 심회가 아니다. 오늘 ‘늦인 봄의 꽃 수풀’가에 다시 돌아온 것도 이런 부끄러움과 무관하지 않다. 아, 세월의 회랑을 걷다가 지난날을 돌아보았을 때의 참담함……아마 이런 낭패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한 ‘그때 거기’에서 벗어나기란 정녕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과연 나만의 것일까.

최근에도 한용운에 대한 논의는 그칠 줄 모른다. 그는 분명 ‘시인과 선승과 혁명가’로서 인격의 일체화를 이룬 한국 정신사의 거목이며, 『님의 침묵』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

1) 고재석, 「머리말」 『한국근대문학지성사』, 깊은샘, 1991.

은 여전히 등정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침묵의 산’인 셈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 역시 어떤 선입관에 사로잡혀 그의 삶과 문학을 재단했다가 뒤늦은 깨달음에 다시 붓을 드는 것은 아닐까.

물론 문학 연구의 일차 대상은 텍스트이므로 그 논의의 폭과 깊이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후속 작업의 의의는 결코 적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그러나 객관적 자료의 검증도 없이 그의 삶과 시대를 관념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석을 거듭하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의 악순환은 아닐까. 한용운의 생애를 정당하게 복원하고 평가하는 일은 그러므로 단순한 배경 연구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그의 문학적 전모 나아가 근대 문학사의 정신사적 성격의 일부를 밝혀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부터 순차적으로 그의 행적을 세밀하게 살펴보려는 것²⁾은 ‘시인으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을 부끄러’ 했던 그를 어색한 자리에 초대하고는 곤혹스럽게 질문을 던지는 살아 남은 자들의 무례함을 버리고 그와 함께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이라도 걷고 싶은 마음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 오랫동안 그를 골안개처럼 둘러싸고 있던 풍문의 숲을 벗어나 푸른 하늘이 맞닿은 조그만 언덕이라도 함께 올라가고 싶은 것이다.

2. 국권의 상실과 유신의 열망

이등공 일행은 작일 26일 오전 9시에 함이빈에 도착하였는데 노국 탁지대신은 기차 안에서 이등 공을 방문하여 20분 동안을 담화한 후에 함이빈 일본 총

2) 이 글은 국권의 상실 속에서 전혀 다른 질서를 지닌 타자로 다가온 근대라는 역사적 경험 체계를 한용운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려는 기획의 일부로 일단 1910년부터 1914년까지 5년 동안의 행적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다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용운과 불교계의 움직임에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다른 불교 지식들과의 관계나 여타 종교,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출판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대응 양상을 생략하게 되어 아쉽다. 이는 이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영사 천상의 인도로 일동이 차에 내려 노청 양국 관리와 각국 외교관과 청로 양국 문무관과 기타 각 환영 단체의 정렬한 앞으로 걸어 나아가 노청 양국 대관과 각국 대표자들과 차례로 악수례를 행하고 일반 단체의 정렬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즈음에 노국 군대가 정렬한 곁에서 별안간 포성이 일어나며 순식간에 탄환 삼발이 이등공의 바른 옆구리를 맞혔는데 일인 만철 총재 중촌이가 즉시 이등 공을 안고 노국 관리들이 기차 안으로 붙들어 들어 일본 의사와 노국 병원에서 온 의사가 같이 구원하였으나 30분 후에 절명되었다더라. 범인은 20세 가량 된 한인인데 7연발에 탄총으로 이등공을 먼저 쏘고 연하여 일본 총영사 천상과 삼 비서관의 바른 팔과 가슴을 쏘고 이사 전중의 바른 발을 쏘았는데 범인은 말하기를 이등에게 압박을 당하던 한을 갚았노라 하였고 그 시체는 26일 오전 11시에 함이빈에서 오늘 아침 9시에 대련에 도착하였다더라.³⁾

1879년생. 동갑내기. 천주교 신자로 “신체가 부대하고 눈썹이 많고 두 눈에 광채가 있으며 수염이 팔자로 담상담상 나고 입술은 오무린 모양이오 면상에는 수색을 띠었는데 철사로 허리를 엮었으며 손에는 고랑을 채우고 옥문 앞에 섰는”⁴⁾ 안중근. 뿐인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처단할 것을 맹세하며 왼손 무명지까지 잘랐던 그는 “경찰관을 대하여 강경히 말하되 우리들이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버림은 자기의 본분이어늘 이같이 확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 음식으로 말하여도 이같이 추한 것을 주어 먹지 못하겠으니 우리들을 대신 지위로 대접하라”⁵⁾며 너무나 의연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한용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안해주(安海州),⁶⁾는 그에게 바친 헌시다. 그는 여기서 그의 거사를 보호국으로 전략한 대한제국의 어두운 밤하늘을 깨뜨리는 천동소리로 찬양하고 있다. 암흑한 현실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뇌하고 있던 그에게 이 소식은 한줄기 빛이 아니었을까. 안중근은 만나 보지 못

3) 「이등 암살 상보」, 《대한매일신보》, 1909.10.28.

4) 「사진 도착」, 《대한매일신보》, 1909.11.12.

5) 「안중근 소식」, 《대한매일신보》, 1909.11.9.

6) 『한용운전집』 권1, 신구문화사, 1973, p.163. 이하 『전집』으로 약칭함. “만석의 뜨거운 피 열 말의 담! 한 칼을 버려 내니 서리가 날려 고요한 밤 갑자기 벼락이 치며 불꽃 튀는 그 곳에 가을 하늘 높아라”(萬斛熱血十斗膽 淬盡一劍霜有韜 霹靂忽破也寂寞 鐵花亂飛秋色高)

했던 그의 동지이자 외우였다. 그럼에도 대한제국은 안중근과 수많은 의병들의 희생을 뒤로 한 채 1910년 8월 29일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면 한용운은 이 비극적인 역사의 전환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예상과는 달리 1910년 3월 승려 취처에 관한 「헌의서」를 중추원에 청원하고 9월에는 통감부에 「건백서」를 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당시 불교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듯 그의 평생 지기이자 선배였던 박한영조차 한용운이 미쳤다고 탄식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건백서」에 담긴 충정을 헤아리지 않거나 인구는 곧 국력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 무지한 사람들의 편견인지도 모른다. 대한제국의 몰락을 지켜보며 항일 민족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대한매일신보》의 사설은 이를 증명한다.

근일에 중들이 장가들고 시집가기를 임의로 하자는 문제가 일어나서 혹 절에서 의논도 있었다 하며 혹 정부에 헌의도 하였다 하니 이것이 실로 한국 내 중에게 좋은 소식이다.

대개 불교는 지금 세계 종교 중에 신도가 제일 많은 종교라. 그러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불교를 믿는 자들이 아내를 두고 남편이 있거늘 이 한국에서는 불교를 믿는 동포가 자래로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엄금하여 남자는 아내가 없고 여자는 지아버가 없어서 장가를 들지 아니하고 시집을 가지 아니하는 것으로 불교를 믿는데 큰 법문이 되었더라. …(중략)…

이를 인하여 인민의 번성함을 방해하며 재정을 허비하는 재앙이 되어 오늘날 국가의 실력이 쇠약한 근인이 되었으며 또 이 뿐 아니라 불교에도 해로운 것이 또한 적지 아니하니 옛적 삼국 시절과 고려 시대에는 대단 성행하던 불교가 날마다 쇠잔하여 오늘날에 이르러 이렇게 된 것은 비록 정치의 관계를 인하여 이렇게 되었으나 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엄금하는 폐단이 또한 한가지 까닭이 된다 하리이다. …(중략)…

그러나 우리는 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임의로 하자는 문제를 일으킨 중들에게 고하노니 대개 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엄금하는 폐단이 전래하기를 오래한 것이라. 중 된 동포 중에 혹 놀라고 괴이하게 여길 자도 있을 듯하며 혹 즐겨 하지 아니할 자도 있을 듯하나 제군이 과연 성심으로 중 된 동포를 권면하여 그 고집하는 마음을 변화도록 하면 어찌 성공함을 보지 못하리오. 오호라 근래 한국에 풍운이 날마다 변하고 산하가 날마다 비참하게 된 이후로 우리

는 중 된 동포들의 분발하기를 기다린지가 오랜지라. 근일에 중들이 혹 학교를 설립하는 자도 있고 혹 교법을 개량하는 자도 있으나 그러하나 오히려 전국 중들에게 이런 풍조가 다 미처가지 못한 고로 혹 일본 중을 좇아서 그 설법하는 것을 듣는 자도 있다 하기로 우리가 분개히 여기고 한탄함을 말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이 장가들고 시집가기를 임의로 하자는 좋은 소문을 듣고 붓을 들고 하례를 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또 중 된 동포에게 한번 다시 권면할 말이 있으니 동포들이 이 문제를 성취하는 날에 교육도 확장하며 실업을 권장하고 국가정신과 민족주의를 크게 진흥하여 멸망되는 화를 벗어나서 극락의 복을 받게 할지이다.⁷⁾

이 사설은 한용운의 주장⁸⁾과 동일하게 승려 가취(嫁娶) 금지 조치는 인민의 번성함을 방해하고 재정을 허비하는 재앙이 되며 국가의 실력을 쇠약하게 만든 원인이 된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그의 「건백서」는 통감부⁹⁾에 건의했을 뿐 아니라 계율을 경시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오해를 받아 왔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자신은 “부처님의 계율을 무시하여 승려 전체를 휘몰아 음계(淫戒)를 범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자유에 일임“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승려들이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 교세를 확

7) 중에게 한가지 좋은 소문, 《대한매일신보》, 1910.4.19. 이 사설은 강홍두의 승니 가취(嫁娶) 청허(1908)와 한용운의 「중추원 헌의서」(1910.3)를 의식하고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중추원에서 남승과 여승 혼인에 관한 일로 내각에 건의함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그 안건을 실시케 할 뜻으로 일간 내부령으로 반포한다더라”(「중의 혼인」, 《대한매일신보》, 1910.5.1.)는 기사를 볼 때 중추원에서는 한때 그의 헌의서를 정식으로 검토했던 것 같다.

8) 한용운은 승려의 가취 금지 조치는 윤리, 국가, 포교, 교화의 측면에서 해롭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의 식민(殖民)과 도덕의 생리와 종교의 포교에 있어서 백해무익하다는 것이다. 『전집』 권2, pp.82~89. 참조.

9) “일한병합 후로 조선인 중 정치에 관한 장서를 사내 총독에게 제정하는 자가 일익한지(日益還奎)하는 고로 경무 총감부에서는 각 경찰서에 신칙(申飭)하여 장서 제정하는 자를 금지케 하였다더라.”(「장서 제정자 금지」, 《매일신보》, 1910.10.13.) 합방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총독에게 장서를 제출했으며 한용운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왜 하필이면 통감부였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나 같았으면 그런 치욕을 당하느니 죽었을 것”이라며 기염을 토하는, 살아남은 자들의 이기심이 아닌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통감부는 현실이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그렇다면 차라리 망명을 하지 그랬는가 반문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이기적인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망명 행위가 반드시 현실 도피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지 않던가.

장·보존할 수 있으며, 기취(欺取)와 개길 생활로 배척받았던 불교도의 경제적 미자립성은 물론 식민(殖民)¹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기술적 도구 체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 체제’의 근대사회는 많은 인구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보호국으로 전락한 대한제국의 경우 인구 증가는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요청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목하 정부에서 인민의 호구 조사를 실시하는 중인데 준비하였던 조사에 쓸 종이가 부족이 되고 인구의 수효는 장차 1,500만이 더 되리라 하여 당국자들이 의외에 이같이 인구가 다수되는 것을 놀래었다더라. 오호라 근래에 일인이 한국을 인구가 적은 나라로 알고 멸시하여 어떤 자는 한국의 인구가 1천 1, 2백만에 지나지 못한다 하며 심한 자는 혹 700만 혹 600만이나 되는 소수라 하는데 저 정부의 관리배들도 제 나라 인구의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저것들의 말대로만 믿어 한국의 인구가 도시 1,000만 가량이라 하다가 지금 의외에 이처럼 월수히 많은 줄을 알았으니 의호 놀랄 만한 일이다. (중략) 그러나 국가의 강하고 약한 것은 인구의 많고 적은 데 있지 아니한지라. 그런고로 인도는 인구가 2억이나 있는 나라이로되 멸명함을 면치 못하였고 미국이 독립할 때에 인구가 800만이 못되었으되 필경은 독립의 기를 세웠나니 오호라 동포여 인구가 많지만 축원하지 말고 다만 지사가 많으며 의인이 많으며 열혈남자가 많기를 축원할지이다.¹¹⁾

한용운은 이처럼 혁신적이고 근대적인 불교 개혁안¹²⁾을 과감하게 제출하다

10) 「본년도 조선 호구」(《매일신보》, 1910.11.19.)에 의하면 1907년 978만 1,671명이던 인구는 1910년 1,293만 5,28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제국 인구의 통계」(《매일신보》, 1916.6.21.)를 보면 일본은 현재 본토 5,335만 6,295명 조선 1,516만 9,923명 대만 326만 5,169명 화태(樞太) 1,191명 합계 7,179만 3,078명, 곧 세계 총인구 약 14억 4천만명 가운데 4.9%에 해당하는 인구를 갖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1916년 우리와 일본의 인구 비율은 1 : 4.5인 셈이다. 1847년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에 패하면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주를 내준 히스패닉(중남미계)이 왕성한 출산과 이민으로 미국의 총인구(추계 2억 8,480만) 가운데 13%(3,700만)를 차지하여 흑인(12.7%, 3,610만)을 제치고 고토를 되찾고 있다는 보도(《동아일보》, 2003.1.23.)는 시사적이다. 21세기의 무기역시 창과 칼이 아니라 인구인 셈이다. 한용운은 원리적으로 자연과의 공생이 있을 수 없는 노동의 시대를 사는 한, 승려들도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1) 「대한의 인구」, 《대한매일신보》, 1910.1.9.

가 경술년의 국치를 맞이했고, 이를 전후하여 화산의숙의 강사로 취임하게 된다.

장단(長湍) 내인(來人)의 전설을 거한즉 장단군 화장사(華藏寺)에서 청년 승려를 교육하기 위하여 학식이 섬부(臆富)한 교사 한용운 씨를 연빙(延聘)하여 화산의숙(華山義塾)이라 명명하고 본년 9월 23일에 개학한 바 숙장 이경제(李鏡濟) 숙감 김지순(金之淳) 학감 임경담(林鏡潭) 제씨가 빈구(貧窶)함을 불구하고 열심 시무(視務)한 결과로 출석 생도가 23인에 달하였고 진취의 희망이 유하다더라.¹³⁾

이후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1910년 12월 8일)하면서 다시 한번 승려 교육의 혁신을 절감했던 그는 교육열이 왕성했던 호남 지역의 사찰을 순례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 뜻을 같이하는 여러 동지들을 만나게 된다. 특히 그와 함께 임제종운동을 이끌었고, 그의 혁명적 정열과 해방적 관심을 심원한 사유의 바다로 이끌어 주며 문학의 깊은 향기를 제공하는 박한영¹⁴⁾과의 만남은 운명적이다. 그는 한용운의 스승이자 영혼의 도반이었다.

남래인(南來人)의 전설을 문(聞)한 즉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승 한용운 씨는

12) 한용운과 신채호의 불교 개혁안은 전투적이다. “무릇 승려 제씨는 급급히 분발흥기하여 첫째는 불도의 전래하는 세계를 구원하는 주의를 잊지 말며, 둘째는 한국 불교에 국가주의가 특색이 됨을 잊지 말며, 셋째는 새 세계의 지식을 수입하여 일체 사업을 외국 승도에게 사양치 말지이다. 심산궁곡 어둔 절에서 홀로 자기 몸만 닦아 천당으로 가려 하는 자는 부처님이 돕지 아니 하시고 지옥으로 가게 하느니라”(『승려 동포에게 권고함』, 《대한매일신보》, 1908.12.13. 『단체 신채호 전집』, 별권, 형설출판사, 1987에 재수록.) 한용운 역시 우승 열패의 약육강식이 자연의 법칙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조선 불교가 유린당한 원인은 세력이 부진한 탓이고 세력의 부진은 가르침이 포교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불교유신론』은 진보와 경쟁의 사회에서 탈락하지 않고 이기려면 남은 꺾질을 깨뜨리고 가짜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집약된다. 유신은 파괴의 아들이며 파괴는 유신의 어머니인 것. 다만 국내의 한용운이 전투론적 주장론을 주장했다면, 상해의 신채호는 이승만의 외교론과 안창호의 준비론을 비판하면서 무장투쟁 노선을 고수하다 전세계적 차원의 민중 해방을 목표로 하는 아나키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재석, 『숨어 있는 황금의 꽃』, 동국대 출판부, 2000. 참조.

13) 『사문신숙(沙門新塾)』, 《매일신보》, 1910.11.27.

14) 고재석, 『영혼의 도반과 투명한 유산』, 《한국문학평론》, 2001, 여름호. 참조.

학문과 지식이 유여하여 불교계에 특색이 유한 인으로 승려의 교육이 급무됨을 조이각지(早已覺知)하고 금년 하추 간에 전남 각사에 유력(遊歷)하여 교육에 대한 연설을 격절(激烈)히 하는 고로 도처에 성대한 환영을 수하고 기 결과로 교육이 일층 진취되었는데 명춘에는 13도 각사를 주행하여 교육을 대확장할 계획이라더라.¹⁵⁾

“자유란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써 한계를 삼는다”는 한용운은 나와 너, 여기와 저기, 과거와 현재,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차등과 단절을 거부한다. ‘너’를 절대적으로 긍정하며 ‘나’를 부정하는 비겁도, ‘나’를 절대적으로 긍정하며 ‘너’를 부정하는 독선도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존재와 비존재의 구분에 집착하지 말고 존재의 상호성과 역동성¹⁶⁾을 깨달으라고. 삼라만상의 이치가 그렇듯 역사도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천한다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실체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변화하는 ‘존재의 결여’에 다름 아니라고……。 이처럼 중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의 전투적 수양주의는 한쪽의 일방적 독주나 절대화를 용납하지 않는 점에서 주체적이며 미래적이다. 그가 많은 승려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보들은 “1910년. 박한영 진진웅 김종래 장금봉 등과 한일 불교동맹 조약 체결 분쇄”¹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과연 그랬을까. 우리는 혁명적 관심의 소유자가 타락한 현실과 대결하면서 내면화되는 과정을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15) 「불계명성(佛界明星)」, 《매일신보》, 1910.12.17.

16) 『진집』 권2. p.44. 이는 달리 말하면 어느 한쪽 질서 체계에 갇히지 않고 ‘나’를 지속하며 타자와 대화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나’를 구성함을 뜻한다. 한편으로는 지속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구성되는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언제나 살아 움직이며 여기와 저기라는 공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가 시대의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시인과 선승과 혁명가의 일체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상의상대(相依相待)의 중론적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 근대라는 타자의 질서 체계에 갇혀 과거(전통)를 부정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자기 부재 상태로 빠져 들어갔던 젊은 문인들의 고아 의식과 대비되는 측면이 아닐 수 없다.

17) 만해기념관(<http://www.manhae.or.kr/libry.hrm>)에는 1911년으로 되어 있다.

3. 해방적 관심과 현실의 벽

아직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11년도에는 한용운에 관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1912년도에 들어오면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 범어사 중 한용운 등은 경성 중부 대사동 등지에 조선 임제종 중앙 포교당을 설립하고 임제종의 진리 도덕을 세계에 발표할 목적으로 오는 음력 4월 10일에 성대한 개교식을 선행하기로 지금 준비하는 중이라더라.¹⁸⁾

경상남도 부산부 범어사 주최로 경성 사동 28통 6호에 포교당 건축함은 전보에 누계(累揭)한 바어나와 공역(工役)이 취필(就畢)하므로 문폐는 조선 임제종 중앙 포교당이라 하고 5월 26일(음력 4월 10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는데 기(其) 식순은 여좌(如左)하더라.

개회-하오 3시. 귀의삼보-회주발성(會主發聲) 대중수화(大眾隨和). 창가-사립 호동학교 학생. 주악-고아원 음악. 취지 설명-한용운. 팔정(八定) 3분간 회주 타비(打篳) 삼해(三下). 설교-백용성 30분. 찬연-정운복 이능화. 축사-고천대항(古川大航) 손덕봉 윤태흥 최병두 백석기 이강영 서광전 현제용. 주악-고아원 음악. 창가-사립 호동학교 학생. 불교 만세. 폐회. 진다과(進茶菓)¹⁹⁾

중부 사동 임제종 중앙 포교당 주무 한용운은 관청의 인허도 없이 기부금 1,000여원을 모집한 일로 인하여 북부 경찰서에 피착하였다더니 해서에서 심사한 후 지나간 토요일에 경성 지방법원으로 압송하였다더라.²⁰⁾

중부 사동 임제종 중앙 포교당 주무 한용운 화상이 인허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일로써 북부 경찰서에 피착되었다는 말은 이미 기재하였거니와 다시 확실한 소문을 들은즉 북부 경찰서에서 불러들여 전후 사실을 조사한 후 그 문부는 아직 해서 두고 한용운 화상은 즉시 나와 처분만 고대하는 중이오 검사국으로 압송한 일은 당초에 없더라.²¹⁾

18) 「임제종의 개교식」, 《매일신보》, 1912.5.17.

19) 「개교식장」, 《조선불교월보》 5, 1912.6.25, pp.69~70.

20) 「검사국으로 압송」, 《매일신보》, 1912.6.4.

위의 기사는 임제종 중앙 포교당에서 성대하게 개교식을 거행하며 취지를 설명했던 주무 한용운이 관청의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죄목으로 체포되었다가 방면²²⁾되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면 그는 어째서 돌연히 이런 불미스런 기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아무래도 당시 불교계로 되돌아가 보지 않으면 안될 듯하다. 먼저 임제종 중앙 포교당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순천군 송광사에서는 보명학교를 설립하여 송광면과 연합하고 선암사에서는 상암면과 연합하여 교사를 연방하고 학도를 모집하여 열심히 교수한다더라.²³⁾

전남 제사(諸寺)에 보통학교 설립으로 언(言)하면 구례군 화엄사 내 신명(新明)학교 순천군 선암사 내 승선(昇仙)학교 송광사 내 보명(普明)학교 해남군 대둔사 내 대흥(大興)학교 장성군 백양사 내 광성(廣成)의숙이니 학원이 다지(多至) 7-80명이오 소불하(小不下) 3-40명인데 왕추(往秋)로 기(起)하여 금추로 지(至)함에 학문 정도가 증증일상(蒸蒸日上)의 세(勢)가 유(有)한 중 광성의숙은 부근 구사(九寺)의 전재(錢財)를 각집(釀集)하여 열심히 교육 중인데 발기인은 배학산(裵鶴山) 백화은(白華隱) 임재근(林在根) 박한영 송만암(宋曼庵) 김종래(金鍾來) 제씨오. 과정은 고등 소학과와 농림 실업과라더라.²⁴⁾

전남 장성군 백양사 광성의숙의 진취 상황은 전보에 이계(已揭)어나와 해 숙장 박한영 씨가 열성 교유한 결과로 생도의 학력이 일진하고 품행이 단아함을 인개찬송(人皆贊誦)하더니 본년 3월 천장절에 해군 헌병 대장이 부근 7개 학교와 유지 신사를 다수히 청요하여 경축식을 거행하였는데 취중(就中) 학생의 제제(濟濟)한 위의(威儀)와 임원의 심부(瞻富)한 학문은 광성의숙이 갑어전도(甲於全道)라더라.²⁵⁾

21) 「한용운 사실의 후보」, 《매일신보》, 1912.6.5.

22) 그러나 『전집』과 만해기념관의 1912년도 연보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불교대전』 편찬 계획, 고려대장경 열람 시작”으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23) 「연합하여 흥왕」, 《대한매일신보》, 1910.4.2.

24) 「호남 제사의 흥학」, 《매일신보》, 1910.10.22.

25) 「광성의숙의 진취」, 《매일신보》, 1910.11.26.

위의 기사는 송광사, 화엄사, 선암사, 백양사, 대흥사 등 호남의 대표적인 사찰들이 다른 지역의 사찰보다 승려 교육에 열성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비로소 그 곳의 승려들이 “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교육을 진흥시키는 자는 마땅히 불도를 이루리라”고 외쳤던 그를 뜨겁게 맞이했던 이유를 소상히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의기투합의 기쁨도 잠시 이들은 일본의 한 신문을 보다가 당시 종무원 총대였던 이회광이 일본에 건너가 조동종과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했음을 알고 경악한다. 한용운은 박한영 장급 봉 진진응 김종래 등과 승려 쟁기대회를 열어 이회광의 음모를 폭로하고 임제종 운동을 결의한다. 1910년 겨울의 일이다. 그러면 연합조약이란 무엇인가. 합방 전부터 교단 통할기관인 원종 종무원을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이회광의 행보는 그 이면을 보여준다.

한국 각처에 있는 절에서 대표자를 특별히 정하여 전국에 있는 절을 통일하며 불교를 통일할 목적으로 일본 중을 고문으로 정하고 경성에 종무원을 설치하기로 규칙을 정하고 인허를 내부 대신에게 청원한 고로 내부 대신이 작일의 회에 제출하였는데 일간 인허가 될 터이라더라.²⁶⁾

각도 사찰 총대 이회광 씨가 전국 불교를 통일하기 위하여 종무원을 설립하기로 청원하였는데 그 규칙의 청원은 지금 통감부에서 협의한다더라.²⁷⁾

원흥사는 수일 전부터 종무원이라 자칭하고 종무원 소속 불교당을 중부 사동 등지에 건축할 차로 내부에 청원하여 인허를 맡아 오는 3월 경에는 역사를 시작할 터인데 13도에 있는 각 절에서 연조한 백미가 2,000여 석이라더라.²⁸⁾

승려 중 유명한 이회광 씨 등 몇십 명이 재작일 동대문 밖 원흥사에 회동하여 불교당을 교동이나 사동 등지에 건축할 사건과 건축비 30만환을 각도 승려에게 수렴할 사건을 협의하였더라.²⁹⁾

26) 「종무원 설립 계획」, 《대한매일신보》, 1908.11.4.

27) 「불교 종무원」, 《대한매일신보》, 1909.2.18.

28) 「불교당 건축」, 《대한매일신보》, 1910.2.8.

종무원 주인 이회광은 중부 박동에 각황사라 하는 절을 건축하고 불교에 당한 사무를 처리하겠으니 인허하라고 내부에 청원하였다더라.³⁰⁾

원흥사 중 이회광 석금허 양인이 발기하여 박동에 있는 동녕위궁을 3,000환에 사서 불교당을 건축할 사에 대하여 강원도 각 절에서 돈 6,000환과 삼남 각 절에서 보조한 백기가 천여 석 가량인데 불교를 확장할 차로 사내 통감에게 청원코자 하여 일진회장 이용구에게 소개한 즉 이용구가 말하기를 신임 통감이 이러한 사건은 주의치 아니하니 청원하여도 소용이 없을지라 시천교에 합동하여 불교를 확장하는 것이 좋다 하나 그 중들은 불금한다더라.³¹⁾

동대문 외 원흥사는 불교 원종 종무원이라 개칭하고 조선 각지방 사찰을 관할하는데 해원(該院) 주무 이회광 씨가 사찰 급 불교를 시찰하기 위하여 일전에 동경에 전왕(前往)하였다더라.³²⁾

중부 전동 각황사 주무 이회광 씨는 일본 종무원 정황을 시찰차로 도왕하였다더니 거 11일 오후 8시 10분에 남대문 착 경부 열차로 귀래하였다더라.³³⁾

각황사 주무 이회광 씨는 원종 종무원을 설립한 차로 규칙을 제정하여 내무부에 청원하였다더라.³⁴⁾

29) 「승려 회의」, 《대한매일신보》, 1910.4.15.

30) 「절을 짓겠다고」, 《대한매일신보》, 1910.5.20.

31) 「불교 확장」, 《대한매일신보》, 1910.6.29.

32) 「시찰 불교」, 《매일신보》, 1910.10.6.

33) 「중부 시찰원(視察員) 귀경」, 《매일신보》, 1910.10.13.

34) 「종무원 설립 청원」, 《매일신보》, 1910.10.22. 그렇다면 “1908년 3월에 원종 종무원을 설립했다”는 박경훈·강석주(『근세불교백년』, 민족사, 2002, p.41.)의 지적은 옳지 않다. 위에서 보았듯이 전국 사찰 총대 이회광은 1908년 11월 3일에 종무원 설치 인허를 내부 대신에게 청원했을 뿐이다. 그는 합방 후인 9월 3일에도 불교의 면목을 일신한다고 각도 각군 사찰의 주지승 330여명을 모아 포교사 양성소 설립과 종무원 유지비와 양성소 경비 부담 문제, 양성소의 개교사장(開教師長)과 종무원 역원 개선 문제를 결의(『각도승 회집』, 《매일신보》, 1910.9.20.)하기도 했으나 여의치 않자 조동종 종무원에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약을 체결(10.6.)했고 이에 자신을 얻어 10월 22일 종무원 설립을 정식으로 내무부에 청원한 것이다. 영호남의 승려들은 아직 정식 인허도 받지 못한 원종—역사적인 종지가 아니라 한국 불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용

합방되기 전부터 원종 종무원을 설립하기 위해 분주했던 이회광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일본 불교계의 유력한 종파의 하나인 조동종 종무원에 의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불교계의 혁신을 위해 묵묵히 교육 사업에 힘쓰고 있던 승려들은 그의 굴욕적인 매종(賣宗) 행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가 세존이 인도에 강생(降生)하시니 불교의 개산(開山) 비조(鼻祖)라. 가섭에 직전(直傳)하고 아난에 재전(再傳)하여 전수심등(傳受心燈)이 28전차(傳次)에 지(至)하니 개시(蓋是) 서천(西天)의 종계(宗系)라. 내용을 추상(追想)하면 선교율(禪教律) 삼종의 구별이 유하나 쌍루각립(雙壘各立)의 영향은 미견(未見)하였더니 남인(南印) 왕자 보리달마가 과해동도(過海東渡)하시니 문자는 불립하고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독관주견(獨關主見)을 창도하사 사갈팔봉척(四喝八棒的) 준고(峻高)한 가풍은 구담씨용장(瞿曇氏龍藏)에 미유(未有)한 바라. 소림당 전(前)에 신광대사(神光大士)를 득유(得遇)하여 전심수의(傳心授衣)의 능사(能事)를 방필(方畢)하시니 시위(是謂) 동하초조(東夏初祖)라. 자자이환(自茲以還)으로 선교종(禪教宗) 추립(抽立)의 자세가 두각(頭角)이 쟁영(爭嶸)하였고 어조(二祖) 삼조로 오조 동산(東山) 문하에 지(至)하여 남돈북점(南頓北漸)의 양종(兩宗)이 고수(高秀)커늘 남종 혜능 대사의 종도(宗徒)가 우승하니 시위(是爲) 육조(六祖)라. 기(其) 문하에 오종(五宗)이 삼차굴기(參差崛起)하니 왈 임제종 왈 조동종 왈 위암종 왈 운문종 왈 법안종이라. 종도(宗徒)가 개(皆) 수천에 과(過)하여 불학(佛學)의 전성시대라 칭하는도다. 기 대지(大旨)는 수동(雖同)하나 문풍(門風)이 파수(頗殊)하니 환언하면 일지고일지하(一枝高一枝下)에 만화(萬花)가 개(皆) 결과(結果)라 우열을 영론(寧論)하리오. 왈 약(若) 일본 조선의 불법 선후는 차의(且矣) 물론이오 현금 일본에 불교가 방성(方盛)하여 종문이 십수(十數) 열치(列峙)하여 종도는 개(皆) 수만으로 계(計)하며 선종을 독론(篤論)하면 임제종 조동종이 구혁혁(俱赫赫)한지라. 유(唯) 조선에는 구러이백제이신라(句麗而百濟而新羅)로 불법이 인차상승(鱗次相勝)하던 시대를 추소(追溯)하면 선교(禪教) 문호(門戶)와 오

하게 몽쳤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종무원의 주무인 그가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여 굴욕적인 연합조약을 체결한 사실에 분노했다. 합방 직후의 위압적 분위기 속에서 임제종 운동을 가능했던 것은 이회광의 직권 남용과 무관하지 않다.

종기고(五宗旗鼓)가 색색가관(色色可觀)하겠건만 고려 말엽에 당하여 태고 선사가 정신북학(挺身北學)하여 호주(湖州) 석실 선사에게 의발(衣鉢)을 친수(親授)하니 시(是)는 임제종(臨濟宗) 정맥(正脈)이라. 이씨조(李氏朝)에 입(入)하여 불교가 쇠미(衰靡)한 영향으로 타종교는 적막무여(寂寞無餘)하고 유차(唯此) 태고(太古) 일문(一門)만 기전(箕筭)을 근수(謹守)하니 연즉 구한(舊韓) 승려는 순일한 임제종도라. 누항(陋巷)에 안처(安處)하여 조강(糟糠)을 불염(不厭)하나 세송(世崇)하는 종조(宗祖)야 고금(古今)이 일규(一揆)라. 근대에 도(到)하여 시조(時潮)가 홍용(洶湧)하니 이종교이불교(而宗教而佛教)까지라도 보수 진취의 방침을 주무(綱繆)하는 상황으로 포교 전도와 지덕(知德) 교육을 주창하여 내지 각종의 종무국(宗務局) 우(又)는 출장소가 재재림림(在在林林)하니 자교자종(自教自宗)을 홍광(弘廣)하여 기수불억횡목제민(其數不億橫目齊民)을 의방(義方)으로 교도하여 현미국토(現未國土)에 장엄문명(莊嚴文明)하자는 만시일척(萬矢一的)에 불과하니 선교를 하별(何別)이며 임조(臨曹)를 하택언(何擇焉)이리오마는 이원융이사차별(理圓融而事差別)은 천연(天演)의 공례(公例)라. 균시인야(均是人也)언만 구백야황(歐白亞黃)은 하야(何也)며 균시수야(均是水也)만는 위정경탁(渭清涇濁)은 하야(何也)며 균시목야(均是木也)언만는 강수청금(絳樹青琴)이 갈고연야(曷故然也)며 균시금야(均是禽也)언만 계수암수(鷄水鴨水)는 갈고연야오. 촉류개연(觸類皆然)하니 관감(觀感)이 영무(寧無)하리오. 근일에 모상인(某上人)이 불교 유신에 중열주도(中熱周圖)한다더니 일범동도(一帆東渡)하여 구한 전국 승려의 대표로 자명(自命)하고 임제종 종도(宗徒)를 조동종에 예속하기를 락언성문(諾言成文)한 결과로 정부에 정서(呈書)하야 동경 제신문에 침조(瞻照)되어 자동(自動) 풍실이 자자하니 기기연호(豈其然乎)야. 지방 승려도 인성(人性)을 천부(天賦)하였거든 황차(況此) 신교(信教) 자유 시대에 처하여 이유도 미지(未知)하고 기반(羈絆)을 도수(徒受)하면 수지우(雖至愚)나 질호일언(疾呼一言)이 가무(可無)하리오. 우생(愚生)의 사유(思惟)는 수(誰) 종파는 불론(不論)하고 풍유(風馭)를 각파(各播)하되 피일보추(彼一步趨)하거든 아이일보추(我一步趨)하여 비지(悲智)를 상수(雙修)하여 보도고해(普渡苦海)에 주楫(舟楫)을 용작(用作)하고 구시대의 허위(虛僞)한 진습(陳習)을 척쇄(滌刷)한 이상에 신교미목(新教眉目)을 신일월(新日月)에 제대(齊對)함이 가할지오. 노슬비안奴膝婢顏)으로 오려(吾廬)의 종주(宗曹)를 탈사(脫屣)하고 이가(異家)의 명령(螟蛉)을 감작(甘作)함은 유아불조(惟我佛祖)의 본회(本懷)가 기여시호(豈如是乎)며 피(彼) 조동종(曹洞宗) 주지(主旨)인들 여시(如是)하리오, 고주일염(孤炷一焰)이 사회(死灰)에 방근(方近)할지라도 오(吾) 백운형제(白雲兄弟)는 임

제종 혜명(慧命)을 불부(不負)하고 종문(宗門) 범위 내에 전사죽사(飢斯粥斯)하다가 명월(明月)이 시지(時至)하거든 가풍(家風)을 염롱(拈弄)하리라.³⁵⁾

위의 글은 한국 불교가 임제종으로 종지를 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회광이 조동종과 체결한 연합조약의 부당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한용운은 13도의 각사를 주행하며 교육을 확장하려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1911년 그는 범어사와 송광사 백양사 등을 넘나들며 임제종 중무원³⁶⁾을 설립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다. 그의 모습을 1911년에 볼 수 없는 것³⁷⁾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1911년 2월 11일. 마침내 송보 사찰인 송광사에 영호남을 대표하는 고승 300여명이 모여 조선 임제종 중무원 발기 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2월 11일 전라남도 순천군 송광사에서 교호(峯湖) 양남(兩南)의 고승 300여인이 회동하여 조선임제종 중무원 발기총회를 개함은 전보에 기거(已揭)하였거니와 금(今)에 기 취지서 전문을 게재하노라.

천지가 일포(一胞)오 만물이 동태(同胎)라. 물질계의 공간 시간을 한격(限隔)한 자 수(誰)가 동일 불성의 원자(原子)를 함유치 아니하였으리오마는 물어물(物與物)이 상대(相對)에 지어워(知與僞)가 상선(相嫻)하니 도도한 풍조가 충막(沖漠)한 세계를 동탕(動盪)하여 아연(俄然) 우주가 충돌 무대를 전성(轉成)하였도다.

35) 금화산인 개석생(介石生), 「구한 불교도를 내지 조동종에 예속하려는 사에 대하여」, 《매일신보》, 1911.1.1.

36) 임제종 중앙 포교당(나종의 조선선종 중앙포교당)은 범어사의 주도와 통도사, 백양사, 대흥사, 구암사, 화엄사, 천은사, 관음사, 용흥사의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임제종운동은 이처럼 영호남의 대표적 사찰에 의해 주도되었다. 「포교구 현상 일람표」, 《조선불교월보》 19, 1913.8.25. 참조.

37) 앞의 연보들은 1911년에 만주로 망명을 갔다가거나 주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 것도 벌써 20년 전 일이니 기억조차 안개같이 몽롱하다. 조선 천지에 큰바람과 큰비가 지나가고 일한이 병합되던 그 이듬해이니 아마 1911년 가을인가 보다”(『죽다가 살아난 이야기』, 『전집』 권1, p.251.)라는 회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임제종 중앙 포교당을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고 그에 대한 논의로 들끓고 있던 1911년에 그가 만주로 떠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 자신도 기억조차 안개같이 몽롱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임제종 운동이 무산된 후 실의에 빠졌던 그는 1912년 가을 새로운 모색을 위해 만주로 떠났고, 그 곳에서 불의의 저격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보는 편이 좋을 듯하다.

내약(內約)을 체결하였다.

1. 조선 전체의 원종 사원중(寺院衆)은 조동종과 원전 차(且) 영구히 연합동맹하여 불교를 확장할 사

1. 조선 원종 종무원은 조동 종무원에 고문을 의촉(依觸)할 사(事)

1. 조동 종무원은 조선 조선 원종 종무원의 설립 인가를 득함에 간선(幹旋)의 노(勞)를 취할 사

1. 조선 원종 종무원은 조동 종무원의 포교에 대하여 상당한 편리를 도(圖)할 사

1. 조선 원종 종무원은 조동 종무원에서 포교사 약간원(若干員)을 초빙하여 각 수사(首寺)에 배치하여 일반 포교 급 청년 승려의 교육을 위탁하고 우(又)는 조동 종무원이 필요로 인하여 포교사를 파견하는 시는 조선 원종 종무원은 조동 종무원의 지정하는 지(地)의 수사나 혹 사원에 숙사(宿舍)하여 일반 포교 급 청년 승려의 교육에 종사케 할 사

1. 본 체맹(締盟)은 쌍방의 의(意)가 불합(不睦)하면 폐지 변경 혹 개정을 위(爲)할 사

1. 본 체맹은 기(其) 관찰처의 승인을 득(得)하는 일(日)로 효력을 발생함

명치 43년 10월 6일 조선 원종 대표자 이회광(印) 조동종 종무대표자 홍진설삼(弘津說三)(印)³⁹⁾

이회광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총독부는 ‘호발(毫髮)도 정치에 무관한 지위’에 있겠다는 그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임제종운동이 반 이회광과 반 원종의 차원을 넘어 일제에 대한 반발로 확산될 수 있음을 묵과하지 않았다. 각 지방 사찰의 소속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⁴⁰⁾으로 불교계를 정리하고 있던 그들은 1911년 6월 7일, 7조로 이루어진 제령 제7호 사찰령⁴¹⁾을 발표한다. 그리고 9월에는 사찰령 시행에 관한 처무 방법과 조선 총독부 고시 제 277호 사찰령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한 주지 취직 인가 신청서와 양식⁴²⁾

39) 「운동적 체맹」, 《매일신보》, 1911.4.2.

40) 「사찰 재산 보관 규칙」, 《매일신보》, 1911.2.24.

「사원 재산 관리 규칙」, 《매일신보》, 1911.5.25.

41) 「제령」, 《매일신보》, 1911.6.7.

42) 「사찰령 시행 방법」(《매일신보》, 1911.9.10.)과 「총독부 공문」(《매일신보》, 1911.9.13.)

참조.

마저 결정한다. “조선의 선종은 태고 이래로 임제종의 범맥을 이어왔으므로 임제종이 정당하다”며 종지 수호의 명분을 내세웠던 임제종운동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럼에도 임제종운동의 추진 사찰이었던 범어사와 주무 한용운은 행동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경상남도 부산부 범어사에서는 포교당 일소(一所)를 경성에 우위(又爲) 건축코자 하여 해사 추일담(秋一淡) 씨가 기 사무 간선인(幹旋人)으로 상래(上來)하였다더니 사동 등지에 48간의 가옥 일좌를 2,200원에 매수하였다더라.⁴³⁾

경상남도 부산부 범어사에서 경성에 포교당을 건축함은 전호에 기보한 바어니와 기 매입한 가옥은 즉 사동 전일 선타관(仙塔館)이라. 기(其) 기지(基地)의 저함(底陷)함과 협소함을 혐의(嫌疑)하여 경(更)히 전동(典洞) 중등학교를 인계하여 해(該) 학교 내 가옥 일좌를 포교당으로 사용하고 매수한 가옥 즉 선타관은 사무소로만 사용할 계획이라더라.⁴⁴⁾

경성 북부 사동에 재한 범어사 포교당은 해 가옥 전부를 훼손하고 그 1,250원의 예산으로 신건축하는 중인데 본래 남향으로 건(建)하였던 자를 동향으로 한다더라.⁴⁵⁾

그 결과 그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912년 5월 26일, 임제종 중앙 포교당 주무로 강단에 올라 개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북쪽 원종과 남종 임제종을 망라한 승려들이 이미 사찰령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숨죽이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 때 홀로 만장의 기염을 토했던 알라존 alazon이었는지 모른다. 개교식 이틀 후인 5월 28일, 가사적(袈裟賊)⁴⁶⁾이라는

43) 「교당 운동」, 《조선불교월보》 2, 1912.3.25, p.64.

44) 「중동 인계」, 《조선불교월보》 3, 1912.4.25, p.64.

45) 「교당 신축」, 《조선불교월보》 4, 1912.5.25, p.74.

46) 각황사 승 이회광은 하등 긴급한 사용이 있던지 해사의 가권(家券)을 전집득화(典執得貨)코사 하여 주지승에게 연서(聯書)함을 청하거늘 주직(住職)이 거리책지(據理責之)하며 왈 차사(此寺)는 오등(吾等) 기개인(幾個人)의 소유가 아니오 즉 각도 승려의 공유 재산인즉 불가하다 하는지라, 어시(於是)에 회광이 자인(自印)만 날(捺)하여 모상공에게 전집하고 금화 600원을 채용(賃用)하였으니 가위 가사적(袈裟賊)이라는 세평이 유

비난을 받으며 궁지에 몰렸던 이회광은 11본산 주지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안건을 정하고 30본산 주지회의를 개최한다는 통첩을 각 본산에 발송한다. 그리고 한용운은 6월 4일, 관청의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죄목으로 북부 경찰서⁴⁷⁾에 긴급 체포를 당했다가 풀려났던 것이다. 정치승 이회광의 노회함은 개혁승 한용운의 정열을 압도했다.

5월 28일에 11본산 주지가 전 원종 종무원 임시 사무소 내에 회동하여 4개 조건 1 사찰과 사찰령 시행규칙을 준봉할 건 1 사법을 제일(齊一)토록 제정할 건 1. 본원 과거에 관계를 의결할 건 1 본원 미래 방침을 논정할 건으로 30본산 주지회의를 발기 통첩한 결과로 6월 17일(음력 5월 3일)에 경기도 수원군 용주사 주지 강대련 동 광주군 봉은사 주지 나청호 동 강화군 전등사 주지 김지순 동 양주군 봉선사 대리 김일운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 주지 서진하 충청남도 공주군 마곡사 주지 장보명 경상북도 문경군 김룡사 주지 김혜웅 동 의성군 고운사 주지 대리 김치암 동 장기군 지림사 주지 김만호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 주지 이회광 동 양산 통도사 주지 김구하 동 부산부 범어사 주지 오성월 전라북도 전주군 위봉사 대리 김상숙 동 금산군 보석사 주지 박철허 전라남도 장성군 백양사 주지 대리 박한영 동 해남군 대흥사 주지 대리 신경허 황해도 신천군 패엽사 주지 강구봉 동 황주군 성불사 주지 신호산 평안남도 순안군 법흥사 주지 이순영 강원도 간성군 건봉사 주지 조세고 동 고성군 유점사 주지 김금담 동 평창군 월정사 주지 대리 이계호 함경남도 안변군 석왕사 주지 김륜하 동 함흥군 귀주사 주지 대리 정환조 급 기타 본원 임원 제씨가 출석하여 의안을 일일이 의결하였는데 기 전말의 대략은 여좌함)

제1일(6월 17일) 의안

사찰령과 사찰령 시행규칙을 준봉할 건에 대하여 하 본사를 물론하고 사찰령 급 사찰령 시행규칙을 미해(未解) 우(又)는 오해하는 경우에는 기(其) 최근(最近) 본사로부터 차를 설명하며 내지 30본산이 극력 개오(開悟)하여 과범(過犯) 우(又)는 위반하는 사가 무(無)케 하기로 이의없이 가결된 후에 오성월 씨가 사법을 제일(齊一)히 하자면 중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議)를 제출하매 김혜웅 씨가 현금 쌍방에 대립한 원종이나 임제종에 하(何)를 폐하고 하(何)를 존(存)하

(有)하다더라. (『가사작의 전사(典寺)』, 《매일신보》, 1911.4.18.)

47) 지금의 종로 경찰서이며, 서장은 영목중민(鎭木重民)이었다.

자면 시비(是非)만 분운이기(紛紜而已)오 차 선교(禪敎) 양종은 조선 국전(國典)에 고유(固有)한 종지이므로 승려 법계를 선교양종으로 분간함이니 금일에 종지를 선교양종으로 함이 가하다는 동의로 만장이 일치되어 조선선교양종으로 결정하다.⁴⁸⁾

총독부는 사찰령을 발표하기 전부터 한국 불교는 전통적으로 선교겸수(禪敎兼修)를 종지로 삼아 왔다⁴⁹⁾는 내용을 널리 선전하고 있었다. 한국 불교를 일본 불교에 동화시키려던 원종에 대한 불교계의 거센 반발이 일제에 대한 반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한국 불교를 전통적인 종지에 의해 육성하겠다는 감언을 앞세워야 했던 것⁵⁰⁾이다. 총독부의 이런 의도를 모를리 없었던 이회광은 사찰령과 사찰령 시행 규칙 준봉의 건 등을 안건으로 주지회의를 개최했고, 이들은 6월 17일, 『경국대전』의 사례를 운운하며 원종도 임제종도 아닌 조선 선교양종이라는 대안에 맥없이 동의하고 말았다. 한용운은 개교한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아니 체포되었던 후유증이 미처 가지지도 않은 1912년 6월 21일, 임제종 종무원 중앙포교당 간판을 떼고 조선선종 중앙포교당이라는 간판을 달아야 했다.

6월 21일(회의 중)에 경성부에서 원종 종무원에 이회광 강대련 임제종 종무원에 한용운 삼수를 소환하여 원종 종무원과 임제 종무원의 문패 철거를 명하였는데 원종 종무원은 각본산 주지 회의한 결과로 기위(己爲) 3일 전에 철거하여 조선 선교양종 각본산 주지 회의원으로 변경됨을 변명하였고 임제종 종무원은 기(其) 명령에 의하여 즉시 철거하였더라.⁵¹⁾

한용운은 과연 박한영 등과 함께 한일 불교동맹 조약을 분쇄한 것일까. 아니,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대로 그렇지 않다. 우선 임제종운동은 한용운과 박한영 등 몇몇 개인이 아닌 영호남의 대표적 사찰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종

48) 「회의원 회의 전말」, 《조선불교월보》 6, 1912.7.25, pp.57~77.

49) 이런 논리는 경성 고등 보통학교 교유(敎諭)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조선 불교 종지의 변천」(《매일신보》, 1914.11.7.)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50) 박경훈·강석주, 『불교근세백년』, 위의 책, p.51.

51) 「문패철거」, 《조선불교월보》 6, 1912.7.25, p.78.

지수호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회광은 총독부를 등에 업고 원종 종무원을 조선 선교양종 각본산 주지회의원으로 변경하며 마침내 뜻을 이루었으므로 조동종과의 연합조약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조동종과의 연합조약은 분쇄가 아니라 자동소멸된 셈이다. 또 만일 분쇄되었다면 일년 여에 걸친 대립과 반목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주지회의원장⁵²⁾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었겠는가.

요컨대 정치적 자유를 가질 수 없었던 임제종의 승려들은 사찰령이라는 현실 앞에 무릎을 조아리며 이회광이라는 정치승이 주도하는 대로 미봉책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고 보는 편이 옳다고 생각된다. 물론 친일 일본도로 기울어질 수 있었던 불교계에 각성의 계기를 주고 강학과 포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고등불교강숙과 『해동불보』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임제종운동의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종지 칭호 남용에 관한 통첩 229호⁵³⁾를 경상남도 장관 앞으로 보내면서 임제종운동의 불씨마저 남겨 두지 않을 만큼 용의주도했고, 조선 선교양종 각본산 주지회의원이라는 사생아를 정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을 만큼 막강했던 총독부⁵⁴⁾의 권력

52) 물론 이회광이 박한영에게 사과하고 고등불교 강숙의 교사로 초빙한 것(『박한영사 환심』, 《조선불교월보》 7, 1912.8.25.)과 연말에 이르러 사퇴를 고집한 그를 대신하여 유점사 주지 김금담을 원장으로 선임한 것(『원장의 파임』, 《조선불교월보》 12, 1913.1.25.)을 두고 임제종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회광은 1913년 11월 각황사(조선불교 중앙포교당)를 다시 신축하기로 계획하는가 하면 능인 보통학교 교주로서 포교에 힘쓰는 등 정력적인 활동을 계속했고 1914년 1월 1일 김금담이 사임하자 다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원장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다시 박한영에게 고등불교 강사와 《해동불보》의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긴다.(『조선선교양종 30본산주지 회의소 제3회 총회』, 《해동불보》 4, 1914.2.20.) 그는 남북의 갈등이 종식된 후에도 여전히 중단의 중심으로 건재했던 것이다.

53) 『통첩』, 《조선불교월보》 6, 1912.7.25, pp.51~52.

54)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지금의 눈으로 친일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당시 조선인들이 행동에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통치가 엄중하고 가혹한 것이 아니었다는 역설적 결론을 낸다”는 북거일의 주장(《동아일보》, 2000.5.28.)은 경청할 만하다. 한용운의 연보가 혼란스러운 것은 그를 애써 오염된 현실에서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초조함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는 절대적 권력이었고 인권에 구애를 받지 않았으며 국제 여론의 간섭조차 받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은 그것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때에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법이다. 선택의 여지가

앞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분쇄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임제종운동은 무산된 것이다. 아니 패배가 아니라 파괴를 당한 중지사호운동이었다. 한용운은 이 황량한 경성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1912년 가을 만주⁵⁵⁾로 떠났으리라는 것은 그러므로 지나친 추측만은 아니다.

4. 산 자의 동상과 죽은 자의 노래

이능화는 한용운을 가리켜 “표범처럼 숨고 변하기를 잘하며 먼저 파괴하고 나중에 건립할 것을 주장하는, 마음은 몹시 모질고 정은 급한 의지의 개혁승⁵⁶⁾”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의 평가는 틀리지 않았던 것일까. 공교롭게도 그의 근황은 중앙 포교당 간판을 내리던 날부터 「원승려지단체(原僧侶之團體)⁵⁷⁾」를 발표할 때까지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1913년 가을에야 표

없었다면 비판은 신중해야 하리라. 한용운의 좌절과 소외는 나름대로 소중하다. 그는 압도적인 현실과의 싸움에서 파괴당한 적은 있어도 패배 당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에 대한 보다 성숙한 안목과 배려가 요구되는 오늘이다.

55) 그러나 일진회 침자로 오인을 받고 저격을 당한 그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관세음보살과 꽃의 성현(聖顯)을 보게 된다. 이후 그의 삶과 문학에서 꽃은 일종의 원형상징으로 기능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재석, 『숨어있는 황금의 꽃』, 위의 책, 참조.

56)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신문관, 1918, p.959. “龍雲主意 豹霧隱變... 爲先破壞 然後建立... 其心大苦 其情亦急” 그리고 그의 딸 한영숙 역시 아버지를 가리켜 “한마디로 정치가아셨다”고 필자에게 들려준 바 있다. 또 스스로도 시대가 불운하지 않았더라면 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나는 왜 중이 되었나」, 『전집』 권1, p.141.)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재석, 앞의 책, 참조.

57) 《조선불교월보》 13, 1913.2.25. 이는 새로 쓴 글이 아니라 『조선불교유신론』의 「원승려지단체」와 동일한 글이다. 그런데 『조선불교유신론』은 약 1년 뒤에야 《매일신보》의 광고(1914.4.11~4.28)를 통해 소개된다. “차서(此書)가 출세(出世)한 후에 일면으로 막대한 찬상(讚賞)을 득(得)하고 일면으로 막대한 타격을 수(受)했다”는 구절로 미루어 볼 때 경무 총감부의 원고 검열 통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면 이런 사정 때문에 본문의 흐름상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총감부 건백서」가 들어가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참고로 구한국 내부에서 반포한 출판법에 의해 경무 총감부에서 일제히 압수한 서적은 『신정 동국역사』, 『최신 조동 대한지지』, 『음빙실문집』, 『국가사상학』, 『민중경쟁론』, 『음빙실자유서』, 『국민자유진보론』, 『이십세기적대참국 제국주의』, 『강자의 권리경쟁』, 『애국정신단』, 『몽경제갈량』, 『을지문덕(국문)』, 『이태리건국삼갈전』, 『화성대전』, 『파란말년전사』, 『미국독립사』, 『애급근세사』, 『남녀평권』

총사에서 강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경남 밀양군 표충사에서는本年 9월 20일에 본군 동성 외 무봉암으로 포교당 위치를 정하고 임시 개교회를 본성 내 영남루에서 설행하였는데 당시 관헌 신사와 원근 인민이 만여 원(員)에 달하였는 당일 개교회장에 대본산 통도사 주지 김구하 씨 취지 설명과 통도사 내 명신학교와 표충사 내 명신의숙 생도의 찬불가와 강사 최고전 씨 설교와 강사 한용운 씨 강연과 본 군수 임영준 씨 축사와 내빈 제씨의 축사가 유하여 불교 진흥의 성황을 발표하였다더라.⁵⁸⁾

아마 그는 1912년 겨울 만주에서 상처 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조선불교유신론』을 간행(1913.5.25.)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재차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대전』을 편찬하기로 결심하고 통도사로 내려가 자료 조사에 몰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긴 중생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아플 거를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일까. 우리는 위에서 혁명적 정열을 안으로 삭이며 통도사에 보관된 고려대장경 1,511부 6,802권을 열람하던 그가 오랜만에 푸른 하늘 밑에서 표표한 자태로 강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는 가혹한 현실의 문은 결코 한 사람의 함성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쳤던 것인지 모른다. 『불교대전』(1914.4.30.)은 그가 그 문을 열기 위해 여러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박한영이 고등불교 강숙의 강사가 되고 《해동불보》를 맡았던 것도 이런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진실과 무관하지 않다. 뿐인가. 본말사범⁵⁹⁾을 정비한 종단은 강학과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의욕적으로 강구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자기를 찾아 강물로 들어갔던 진흙으로 빛은 소처럼 팔만대장경과 대결했다. 그리

론』 등 51종이며 그중 구한국 학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교과용 도서가 39종이나 된다.(『시외의 부적인 서적』, 《매일신보》, 1910.11.18.)

58) 『표충사 포교당 설립』, 《해동불보》 2, 1913.12.20.

59) 그가 문학과 삶의 행복한 일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 불운 또는 환경적 결함과 무관하지 않다. 만일 그가 1912년 7월 새로 제정된 본말사범에 따라 주지가 되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러나 그는 “주지는 만 40세 이상으로 비구계와 보살계를 구족하고 법랍 10하 이상으로 대교과를 수료한 자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될 수도 없었다. 그의 해방적 관심은 불교의 부정 정신과 결합되면서 높은 차원으로 승화된 셈이다.

고 1914년 4월 그는 두 권의 책을 들고 다시 저잣거리로 나왔다.

한용운 저, 『조선불교유신론』 정가 35전 특가 25전 대칭예(大稱譽)가 무(無)하면 진영웅(眞英雄)이 아니오 대훼예(大毀譽)가 무하면 역(亦) 진영웅이 아니오. 차서(此書)가 출세(出世)한 후에 일면으로 막대한 찬상(讚賞)을 득(得)하고 일면으로 무한한 타격을 수(受)하니 조□세(造□勢)의 걸작이오 송잔설(送殘雪)의 춘성(春聲)이라. 간명한 필법으로 도도한 파란을 기(起)하여 천년 적습(積習)을 통벽(痛闢)하고 팔면영롱(八面玲瓏)의 신교기(新教旗)를 양(揚)한 채서로다. 만리장정(萬里長程)의 방초(芳草)를 답상(踏賞)코자 하는 유지 제군이여 풍우처처(風雨淒淒)의 파괴적 기백과 백화난만(百花爛漫)의 유신적 정신을 애(愛)하거든 차(此)를 일독하시오. 박안절규(拍案絕叫)의 훼예(毀譽)는 제군의 취미(趣味)에 임하노라. 발매소 경성 중부 사동 조선선종 중앙포교당 경성 중부 포병하(布屏下) 광학서포⁶⁰⁾

차서는 팔만대장경 중의 최요절묘(最要絕妙)한 어구를 선한문(鮮漢文)으로 역초(譯抄)하여 60여 종목에 분과편성(分科編成)한 관세(曠世)의 대저작이라. 불교의 막심(莫深)한 진리와 무궁한 취미를 부인 동자라도 일견통지(一見洞知)니 불가의 포교와 교과서에 금과옥률(金科玉律)이라. 불교인은 수모(誰某)라도 일권씩 수지(受持)하려니와 일반 사회에도 대복음이로다. 학생 제군이여 산악입지(山岳立志)와 각고공부(刻苦工夫)를 모(慕)하거든 차서 중 수학장(修學章)을 독하시오. 사업가 제군이여 참담경영(慘澹經營) 중에 악마의 곤란이 내(來)하거든 차서 중 인내 정진장을 독하시오. 학술가 제군이여 불사의(不思議)의 조화를 지(知)코자 하거든 불타품을 독하시오. 포화세계(泡花世界)에 풍로생명(風露生命)을 유지코자 하는 공상가 제군이여 육체적 단기(短期) 생활을 희생하여 정신적 영겁 생활을 애(愛)코자 하거든 구경품을 독하시오. 수신가는 자치품 제가사(齊家士)는 가정을 사회객은 사회를 정치객은 국가장을 독하시오. 차외(此外)에도 우주 만유의 제반 문제를 일망수진(一網收盡)하였은즉 도도한 고해(苦海) 중에 원만한 낙원을 득(得)코자 하는 제군 제군이여 여하한 감정에 의하던지 차서를 일독하시오. 저자는 만강단심(滿腔丹心)으로 상심 고통 중에 재(在)하신 형제 자매에게 유유일선(悠悠一線)을 간접으로 소개함이로다. 발매소 경성 중부 사동 조선선종

60) 「광고」, 《매일신보》, 1914.4.11~4.28.

중앙 포교당 경성 중부 포병하 광학서포 한용운 찬 『불교대전』 800여혈(餘頁)
순양장(무할인) 정가 85전 특상제 1원 10전(우세 8전)⁶¹⁾

그는 불교계로부터 소외된 고립감 또는 박탈감을 저술이라는 단독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로 통쾌하게 보상한 셈이다. 그러나 그는 머물지 않았다. 도시에서 방황하고 있는 고등불교 생도들과 손을 잡고 불교가 오래 전에 잊어버렸던 진보와 모험 그리고 구세와 경쟁의 사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경성에 유학하는 고등불교 생도와 중학교 생도가 연합하여 불교를 세계에 익익발휘하기로 목적하고 조선 불교강구회를 경성 내에 건설하고 위선 매 일요일이면 회집하여 불교에 대한 강연을 연습한다더라.⁶²⁾

요사이 경성 중부 사동 조선불교 선종 포교당 포교사로 있는 한용운 문탁(文鐸) 김호응(金浩應) 등 몇 사람이 발기하여 조선불교회를 설립하고 경향을 통하여 불교를 확장할 취지로 그 동안 대략 방침을 정하였는데 연일 내로 이론과 내홍(內訌)이 생기어 한용운은 불교회를 조직하고 30본산 주지 범위 안에 들어가지 말게 하고 독립으로 불교 확장을 도모하자 하며 각 본산 주지들은 그렇지 않다 하여 피차 의견이 충돌되어 분쟁이 끊일 새 없으므로 그치게 북부 경찰서 고등계로부터 모두 불러다가 조사한 후 불교회를 조직치 못할 줄로 엄중히 실유 방송하였다더라.⁶³⁾

이미 게재한 바 경성 중부 사동 조선불교 중앙포교당 대선사로 이름 있는 한용운 화상은 불교 신자 문탁 등 기타 제인과 협의 발기하여 불교회를 조직하려다가 인히 중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제지를 당한 말은 모다 아는 바어너와 지금 사세한 내용을 들은즉 원래 한용운 화상의 불교회 발기 취지는 단순히 조선의 불교를 진흥하며 널리 미치기를 도모코자 함이라는 바 30본산 주지의 간섭여부로 분쟁이 생겨 당국의 제지로 할 수 없는 사세에 이르러 다시 계교를 내

61) 「광고」, 《매일신보》, 1914.5~4.29.

62) 「조선 불교 강구회를 건설」, 《해동불보》 8, 1914.2.20.

63) 「불교회의 귀적(歸寂)」, 《매일신보》, 1914.8.15.

어 불교동맹회라는 이름을 고쳐서 각 절에 있는 청년들을 상경하라고 발첩하였고 기타 동대문 밖 주지 회소 안에서 강습을 하고 있는 학생까지 권유하여 기어코 목적을 달기로 결심하고 비밀히 명 일요일에 고양 경찰서 관내 청수동(淸水洞) 근처 청암사(靑庵寺)에 모여서 협의할 터이라더라.⁶⁴⁾

이미 누차 기재한 바 경성 중부 사동 선교양종 포교당에서 전도에 종사하는 한용운 화상 등 기타의 발기로 불교청년회를 조직하려다가 당국의 금지로 중지된 후 무슨 마음이던지 또한 불교동맹회를 조직하고 그 내용으로는 30본산 주지의 간섭이 없이 활동하여 한푼의 돈도 없이 기어코 설립하고 야소교회 포교 같이 길로 다니며 포교할 방침으로써 모든 불교 학생들로 하여금 도장을 찍어 동맹케 한 후 지난번 공일날 동소문 밖 청수동에 나아가서 비밀히 협의한 일은 본보에도 이미 보도한 바어니와 이즈음 북부 경찰서 고등계에서 전기 발기자 한용운을 불러다가 온당치 못한 일을 엄중히 설유하고 동맹회까지라도 조직하지 못하게 이른 후 장래를 경계하여 놓아 보내었다더라.⁶⁵⁾

그는 다시 북부 경찰서 고등계에 불려가야만 했다. 물론 고통이란 쾌락의 다른 이름임을 아는 그에게 감옥이란 더 이상 두려운 장소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들어야 했으리라. “민적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는 웃음소리를. 1914년의 가을은 이렇게 저물었다. 그리고 이 해의 마감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승속이 연합하여 불교를 진흥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이회광은 불교진흥회⁶⁶⁾ 발기 총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혁명적 관심의 소유자 한용운. 그는 승리하고, 이룩하고, 누린 사람이 아니다. 그는 현실에 끊임없이 상처를 받았고 파괴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한 식민지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질서 체계로 다가온 타자, 근대와의 만남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다. 시인과 선승과 혁명가로서의 삶을 일체화할 수 있는 기반과 근대화의 극복 논리는 고통과 쾌락의 양극을 넘차게 넘나들었던 이 짧은 5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64) 「불교회의의 재연(再燃)」, 《매일신보》, 1914.8.22.

65) 「불교동맹회도 금지」, 《매일신보》, 1914.9.5.

66) 「불교진흥회회록」, 《불교진흥회회보》 2, 1915.4.15.

그럼에도 식민지 시대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행적을 정치적이거나 권선징악적인 입장에서 재단하면서 자기만의 동상을 만드는데 만족했던 우리들은 그 어둠의 그늘을 살펴보는데 너무 소홀했다. 우리들은 살아 있는 자들은 항변하지만 죽은 자들은 스스로 변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 역시 또 다른 의미의 동상을 만들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그러.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어요.”—그의 노래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오늘도 침묵이다.

국문초록

한국문학사에서 한용운처럼 지속적인 논의와 오해의 대상이 된 인물도 많지 않다. 특히 국권을 상실하고 『불교대전』을 간행할 때까지의 행적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에 대한 해명은 그가 식민지 현실 속에서 근대라는 역사적 경험 체계를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첫째 한용운은 승려 취처에 관한 건백서를 제출하며 많은 오해를 받았다. 그러나 승려의 결혼 금지는 식산, 경제, 국력, 교세 확장의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1910년 현재 1,293만의 인구에 불과했던 한국 사회는 보다 많은 노동력과 고급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둘째 박한영 등과 임제종운동을 전개하며 한일 불교동맹 조약을 분쇄했다는 것은 실상과 다르다. 정치적 자유가 없었던 그들은 총독부가 발표한 사찰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 운동을 통해 정신사적 각성을 도모하게 되고, 강학과 포교사업에 힘쓰게 된다. 『조선불교유신론』과 『불교대전』은 임제종운동의 무산으로 실패했던 그가 불교계를 위해 발표한 개혁안이며 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다. 이후 그는 종단 밖에서 젊은 승려들과 함께 불교동맹회를 결성하고 불교계를 개혁하려고 했으나 30본산 주지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한편 불교계는 1914년 12월 30일 지식인들과 연합하여 불교진흥회를 결성한다.

한용운은 총독부라는 절대 권력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전혀 다른 질서로 다가온 근대를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는 존재와 비존재, 지배자와 피지배자, 어둠과 밝음이란 서로 의존하며 변화하는 '존재의 결여'이며 '결여의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론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그의 행동적 수양주의는 어느 한쪽 질서에 갇히지 않고 '나'를 지속하며 타자와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나'를 형성한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해 시인과 선승과 혁명가로서의 삶을 일체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을 정치적이고 관념적인 척도로 재단하는데 익숙했던 우리는 그가 치른 고통과 쾌락의 변증적 과정을 냉정하게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 5년간의 행적을 두고 일어난 혼란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Abstract

Property of history and hearsay in Life

—Han, Yong-Woon and his Era I—

Go, Jae-Seok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re is no one to be misunderstood like Han, Yong-Woon, and who raises arguments persistently. Especially, from when Koreans lost their national right to when he published *A Canon of Buddhism*, it was still perplexed on the argument of what he'd worked during the period. A study about this point is essential in order to look into how he coped with the modernness, a unfamiliar historic experience, under the colonial period.

At first, he got blamed when he handed in a proposal to the Ministry of Viceroy about taking a woman as a wife among buddhist monk. However, his claim reflected the needs of the times that the ban of marriage for buddhist monks was useless in terms of industry, economy, national resources and expanding influence of Buddhism. Actually, at the moment of 1910, the population of Korea was merely 12 million 93 hundred thousands, and there was a need on more labor forces, high human resources. Secondly, it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real situation that he annihilated the treaty of Korean-Japanese Buddhism Alliance while he'd evolved a movement of Lim Je Jong (a sect of Zen Buddhism) with Park, Han-Young. They didn't have a right to reject the Ordinance on Temples announce by the Ministry of Viceroy since the political freedom of them was deprived. However, with this movement, it was a clue awakening the korean buddhists and they concentrated on preaching and propagating later on. As a sort of his efforts and a reform bill on popularizing Buddhism, he published *Renewal of Cho-Sun Buddhism* and *A Canon of Buddhism*. Afterward he'd tried to reform the sect of buddhists by organizing Buddhists Alliance with young buddhists, however it failed by voting against the movement of the chief Buddhists from 30 head temples. On the other hand, buddhists formed Assembly of Buddhism Adva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llectual class in Dec. 30th, 1914.

Han, Yong-Woon had never bended his knees in front of absolute power named Ministry of Viceroy but also he'd never rejected the modernness which was quite heterogeneous order to the people at that time. Since he knew that the concept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governor and masses, light and darkness should be 'a lack of existence' and 'a existence of lack' depending on each other. His concept of active self-training based on a moderate view of the world aimed to build up renewed 'self (ego)' through the continuous communicating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getting out of being confined in specific order. During this period, it seems that he might have chance to arrange the background unifying his multilateral life as a Poet, Zen Buddhist and revolutionist. In spite of the factors described on the above, as a one who is accustomed to judge the achievement of the people lived in the colonial situation, we've never tried to examine the dialectic process of agony and pleasure objectively that he'd carried out though whole his life. The arguments about his achievement, during the period of five years, is concerned with this attitude.

■ 주제어 : 근대, 인구, 유신, 원종, 임제종, 종지, 자유, 교육, 총독부, 사찰, 부정